

유교

공자는 기원전 551 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79 년까지 중국에서 살았다. 공자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생활교훈이어서 (Chen & Chung, 1994), 공자는 그를 따르는 철학자들에게 구세주나 신적인 존재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Millay & Streeter, 2004). 유교주의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홍콩, 싱가풀, 대만 등을 포함한 중국 주변의 나라에서 가장 큰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Chaves, 2002; Diriik, 1995; Greer & Lim, 1998; Hahm, 2003; Kim & Park, 2003; Martinsons & Martinsons, 1996). 그러나, 이 유교주의가 이런 여러나라 모두에게 똑같은 위치나, 역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심지어는 같은 한 나라 속에서도 어떤 지역은 더 유교주의적인 반면 또 다른 지역은 덜 유교적인 것이 사실이다 (Hahm, 2003).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유교주의가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교는 오늘날까지 동양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 왔다. 동양사람들은 유교주의적인 문화적 전통 및 유교주의 중심가치에 의해서 강력한 영향을 받아왔고, 그리하여 유교주의는 사업적인 상호관계와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윤리적이면서 도덕적인 기반을 제공해 왔다 (Chaves, 2002; Diriik, 1995; Greer & Lim, 1998; Hahm, 2003; Kim & Park, 2003; Martinsons & Martinsons, 1996).

“공자”라는 이름은 서양의 제수이트 선교자들이 불여 주 것으로서,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를 Kong Fuzi 나 공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Millay & Streeter, 2004). 공자는 가문이 있는 한 무인 집안의 한 외동아들이었다. 공자의 아버지는 첫 부인과의 사이에 딸만 여럿을 두었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 얻기 위해서 16 세의 두번째 부인을 맞았으며, 결국 공자를 얻게 되었다. 공자는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공자의

어머니는 공자를 교육을 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Millay & Streeter, 2004). 공자는 큰 키에 부지런하였으나 외모가 남보다 못하여 친구를 사귀는 등 사회적인 인간관계 대신에 학업에 몰두하는 비사교적인 학생으로 유년시절을 보냈다.(Kelen, 1971). 공자는 20 대 초반에 가르침을 시작하였고(Greer & Lim, 1998), 그의 지식과 정치적인 변혁의 원칙들을 전수했다 (Millay & Streeter, 2004). 공자가 50 세가 되었을 때에 한 도의 도지사가 되었으나 (Millay & Streeter, 2004), 54 세에 모든 관직을 등지고 13 명의 제자와 더불어 철학과 사상을 주고받으면서 중국 전역을 순행하기 시작하였다 (Greer & Lim, 1998; Millay & Streeter, 2004). 그 여행에서 돌아 와 72 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경전을 편집하고 제자들을 수련하는 데에 여생을 보냈다.

유교의 주된 교재인 공자의 “경전”은 20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공자의 사후 100 년이 지나 그의 제자들이 기억과 암기에 기초하여 편집한 것이다 (Greer & Lim, 1998; Millay & Streeter, 2004). 이 책은 춘신, 부자, 부부, 형제, 친구 사이를 비롯한 다섯 가지의 인간관계에서 인, 예, 효의 덕목을 통하여 도덕적 개발의 추구를 강조한 것이다 (Fan, 2002; Herr, 2003; Hwang, 1999; Hwang, 2001; Millay & Streeter, 2004; Nuyen, 2003). 공자의 사후 몇 백년 후에, 그의 가르침은 중국의 관료를 관리하는 공식적인 지침이 되었고, 이것은 19 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Greer & Lim, 1998).

유교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천위주의적인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Martinsons & Martinsons, 1996). 중국 사람들의 사회성을 훈육한 유교적 덕목은 도덕, 효도, 인간 사이의 조화, 단체적인 결정, 자아성취, 예의범적, 교육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Lau, 1996). 유교주의는 중국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학습 양식의 틀을 만들어 왔고, 문화혁명 시기에 극심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 주변의 여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Chan, 1999;

Yao, 1999). 마오쩌뚱은 유교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파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마오쩌뚱은 대안적 공산주의, 그에 따른 대안적 현대주의 창조를 추구하였는데 이것은 유교주의와 거리가 먼 것이었다 (Diriik, 1995). 다른 많은 중국본토의 정치 지도자들도 유교주의를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의 두뇌의 힘 내지 지력(知力)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시스템이 학생들로 하여금 융통성있게 사고하도록 원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Martinsons & Martinsons, 1996). 그리하여, 중국인들은 유교주의가 중국의 근대화를 가로막는 하나의 장벽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반세기 이상 동안 유교주의를 비난했다. 과학과 민주주의가 서양 근대주의의 값진 산물이라면, 유교주의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과학을 경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Diriik, 1995).

그러나, 1980년대에 유교주의가 이념적 관심의 핵심으로 재등장되기 시작했다 (Diriik, 1995; Greer & Lim, 1998). 이 반전은 일본의 뒤를 이어 동양의 네 마리의 작은 용이라고 불리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에 의해서 주도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비롯된 것이었다 (Diriik, 1995). 1982년 싱가폴에서는 학교에 유교주의 교육과정이 시작되었고, 당시 최고의 연구기관이었던 마르크시즘학회에 어떤 경제적 보조를 할 수 없었으나 싱가폴, 대만, 홍콩의 상류사회는 유교주의를 연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막대한 경제력을 제공하였다 (Diriik, 1995).

한국의 유교

한국의 유교주의는 조선시대(1392-1910)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 1910년 일본의 식민지배로 한국이 나라의 주권을 잃게 되었을 때, 유교주의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Hahm, 2003). 한국국민들은 병적인 유교주의적 형식주의와 의식주의가 국가의 상실을 초래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유교주의는 한국사회에서 유교적 기관에 의해 후원을 받고

있던 그 이전의 양반들에 의해 여전히 공식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그의 근대화 계획과 유교주의의 상반성 때문에 일찍이 유교주의를 배척하였으나 나중에 재선 운동에서 이전 양반들의 정치적인 권력에 봉착하였을 때에 유교주의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돌려 먹은 것이 계기가 되어 더욱 유교주의가 한국사회에서 힘을 얻게 되었다 (Kim, 1990, cited in Diriik, 1995; Hahn, 2003). 박정희 대통령 이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정당의 대변인들이 정치적인 문제점에 직면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토론을 할 때마다, 점점 더 유교주의적인 문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역대의 대통령들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그리고 삼성, 현대, 대우 재벌들이 국민이나 사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라에 충성, 부모에 효도”라는 문구를 선전문구로 사용하였다. 재벌들이 효도상을 후원하였고, 또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특히 중고등학교 교사들 사이에 읽혀지던 “전통과 현대”라는 유교주의 재건잡지를 후원하였다. 권력층에서는 유교주의를 강조하는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근로자들과 관리자들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통제를 더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교주의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한국국민들이 그들 특권층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어떤 특정한 유형으로 소비하도록 권장도 하였다 (Lee, 1997).

효도는 회사에 충성하는 것으로 변형이 되었고, 자아개발을 위한 근면성은 직장에서 근면으로 변형이 되었고, 한 가정 내에서 가부장제는 현대의 산업적인 조건에서 고용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변형이 되었다 (Kim & Park, 2003). 유교주의적인 가족윤리는 연장자들에 대한 우선권, 위계적인 질서, 가부장적인 태도, 특혜주의 등 때문에 시장경제의 이행과 경제적 개혁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렇게 유교주의 사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은 재벌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지만, 새로운 지구촌 경제에 내제된 경쟁을 비롯하여 경제상황의 변화에 직면해서 한국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Yao, 1999). 1997년 한국의 재정적인 위기는 유교주의 양식 속에서 자본주의적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것은 유교주의에 대해 관심을 재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Callahan, 1999).

이러한 자아성찰을 통해서 한국사회는 더욱 더 유교주의적인 사회가 되었고, 전통적으로 중국보다도 더 유교주의적인 사회가 되었다. 역사가들과 학자들 사이에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침착한 유교주의적 나라라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Callahan, 1999; Chung, 1994; Hahn, 2003; Yi, 1993).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유교적 유산은 가장 현저하면서 우세한 문화적 양식이었다. 유교주의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숙이 뿐리박혀 있고 (Bak, 1983), 또한 정부는 이러한 유산을 교육적인 체계를 통해서 더욱 강화를 해왔다 (Callahan, 1999; Chung, 1994; Diriik, 1995; Kim & Park, 2003; Yao, 1999; Yi, 1993). 한국 국민들은 유교주의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정부나 재벌들이 유교적인 유산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가치를 선택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국민을 이용해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에게는 두 가지의 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일본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었다. 한편으로는, 일본식민 통치의 경험 때문에 일본의 경제적인 성취와 경쟁하거나 그 보다 더 잘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보다 더 경제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강력한 국가주의적인 정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똑똑히 알게 하였고, 유교주의적인 “근면성실”이라는 사상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쳤다 (Kim & Park, 2003).

아이로니컬하게도, 교육 받은 한국 국민들은 지식적으로 공자가 가르친 것 보다는 칸트나 마르크스가 말한 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유교주의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거나 자신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해석을 해 내는 방법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을 제공해 왔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Kim, 1999)라는 책이 출판 되었을 때에 유교주의가 한국민의 의식 저변에 깔려 있다가 의식의 윗 부분까지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당시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비록 유교주의가 한국국민들이 생활과 행동의 근본적인 바탕이라 하더라도 보통 유교주의가 의식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도록 의식의 윗 부분의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고, 검토되지 않은 한국문화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게 된다 (Hahm, 2003).

법원의 판결들을 검토해 보면 유교주의의 영향이 얼마나 현저한지,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유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비록 법정이 유교주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더라도, 많은 법원의 판결들이 유교주의적 가치의 시작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Hahm, 2003), 이러한 판결들이 때로는 서양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998년의 한 판결에서, 법정은 연로하신 아버지와 병든 형과 함께 살면서 부양할 돈조차 없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한 아파트 임차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998년 6월 판결). 다른 한 예로는, 결혼식이나 다른 가족의례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식과 음료를 차리는 것을 금하는 법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유교주의가 검소와 절제를 미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Judgment of Oct. 15, 1998년 10월 15일 판결). 한국 민법은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데 (1997년 7월 16일 판결), 김씨를 예로 들자면, 280 개가 넘는 김씨 성 중에서, 김해 김씨는 사천 칠백만

한국국민 중에서 거의 사 백만을 차지하는데, 이 사 백만의 사람들 내에서는 서로 결혼할
수가 없다는 법이다.